

2020년 기업윤리 브리프스 <8월>

주제: 환경경영

기업가치를 높이는 청렴경영 가이드

Cover Story

환경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성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최근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위협받으면서, 환경경영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경영은 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환경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이유와 이에 대응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Contents

1. 전문가코칭 - “환경경영”
2. 사례돋보기 - “환경 가치, 기업의 경쟁력이 되다”
3. 보고서리뷰 - “기후리스크, 친환경 포트폴리오로 신규 시장 창출해야”
4. SDGs로 알아보는 기업윤리 - “국내 기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사례(5)”
5. 국내외 동향
6. 행사소식
7. 문화 속 기업윤리 - 독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 『다크워터스』
8. 지식1g - “비용기보증금 제도”
9. 2020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소개
10. 독자퀴즈

환경경영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Q1 기업이 비용 문제를 감수하고 환경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인 수익성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인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이러한 환경경영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는 환경과 관련한 사안을 가장 먼저 규제화하고 그 수준도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오염과 파괴에 큰 책임이 있는 주체로, 이러한 규제 영향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기업에서 환경경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응하는 기업의 접근은 두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와 '경영'의 차이입니다. '관리'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의미한다면, '경영'은 규제 대응을 넘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수익'도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환경관리에 머무르면 비용이지만, 환경경영으로 관점을 바꾸면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GE의 'Green is Green(환경이 돈이다)'은 이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은 환경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전력사용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nergy100)'을 적극 추진하며, 최근에는 '2020 환경보호 성과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제품공급망과 제품생산에 탄소중립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이를 위해 공급망 71개 협력업체와 납품하는 부품 등의 생산에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에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RE100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향후 애플과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금융투자기관들도 저탄소·탈탄소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 2019년 유럽연합이 '그린딜'을 내놓았고, 우리나라도 최근 '그린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환경경영을 지금보다 더욱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Q2 한국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환경과 관련하여 여전히 '규제 대응' 차원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다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경영 수준은 지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룰 세터(Rule Setter, 규칙을 제정하는 기업)'가 아닌 '룰 팔로워(Rule Follower, 규칙을 따르는 기업)'라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환경과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예: CDP, RE100, CEO Water Mandate, Equator Principles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 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실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경영을 조직의 DNA로 내재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Q3 기업이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환경경영을 일선에서 실행하는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탑(Top)에서 관심과 의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정도는, 사실 기업에서 인력과 예산 배분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경경영과 관련한 '지배구조' 문제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이 목표를 추구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지배구조는 규정된 구조와 프로세스에 기반한 '공식 메커니즘'과,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조직의 문화와 가치에 연계되어 나타나는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실무자가 토로하는 CEO의 관심과 의지는 바로 '비공식적인 메커니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경영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실무자의 창조적인 능력과 실행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CEO나 이사회 수준에서 환경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경영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 전략과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례 돋보기

환경 가치, 기업의 경쟁력이 되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부터 태안의 원유 유출사고까지 지구는 각종 산업 재해로 신음한지 오래다. 코로나19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라는 분석이 많다. 환경보전은 더 이상 환경단체들만의 구호가 아니다. 21세기 시장경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이 환경을 외면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21세기에서 끝날 지도 모른다. 이번 사례돋보기에서는 산업 활동으로 인한 분야별 환경재해 사례와 함께 환경 가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 동향을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

▶ 화석연료, 지구를 열 받게 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자본주의 생태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인류의 전례 없는 야생동물 서식 지역 침범, 공장식 축산 환경, 도심의 인구밀집,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이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중 온난화는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바이러스의 발생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육지와 바다의 동물들이 적절한 기온과 수온을 찾아 북극과 남극 방향으로 이동했고, 서로 만나지 않았을 동물들이 조우하면서 감염병을 나눠가지게 됐다. 이렇게 발생한 병원체를 가진 야생동물을 사람이 포획, 섭취하거나 가축을 통해 전염되어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석탄·석유 같은 화석에너지의 과다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다. 화석에너지가 기후변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자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단체만이 아니다. 산업계도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지양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에너지 업계는 사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했다. 재생에너지 분야다.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네덜란드의 로열더치셸, 프랑스의 토탈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잇따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석유 생산이 주력인 업체들이 석유 채굴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에너지기업들의 변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유가 등이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면서 석유 관련 사업이 리스크가 됐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등을 이유로 탄소세 등이 부과되면서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보고서에서 석유 수요가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22년이나 가능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올해 유일하게 생산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투자금융계는 기후변화를 투자리스크라고 명명하고 탄소저감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를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올해 1월 주요 기업에 보낸 연례 서한에서 투자 결정시 '환경 지속가능성'을 핵심목표로 삼겠으며, 석탄 생산 기업을 포함해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높은 위험이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의 탄소저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인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지지하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7개 정부 기관과 전 세계 1,057개 금융 및 비금융 기관이 지지를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한금융·KB금융 등 7개 기관이 지지를 선

언했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자본주의의 침범인 금융투자와 기업의 사업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 플라스틱, 식탁 위로 돌아오다

낙동강 폐놀 유출사건은 1991년 구미공업단지의 두산전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폐놀 30톤과 1.3톤을 낙동강으로 유출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구광역시 등 낙동강 유역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두산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고, OB맥주는 크라운맥주에 1위 자리를 빼앗겼다. 결국 두산그룹은 OB맥주를 포함한 각종 소비재 계열사를 매각하고 2000년대 들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중공업 분야로 진출했다. 폐놀 사태는 두산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수질오염에서 주요 이슈는 플라스틱이다. 썩지 않고 몇 백년간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은, 물리적으로는 부서져도 화학적으로는 변하지 않아 먹이사슬을 타고 식탁 위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시판 중인 생수를 조사한 결과, 제품의 93%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 연구는 임상실험 등에서 제한이 많아 현재 동물과 미생물 수준에서 진행 중이다. 2017년 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1L당 5mg의 농도로 미세플라스틱을 넣은 물에 국내에 서식하는 물벼룩을 노출한 결과, 물벼룩 알의 83%가 부화하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플라스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격적인 규제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유럽연합 내 국가에서는 포크, 나이프 등 10가지 품목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025년까지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을 현재보다 25% 감축해야 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와 병 모두 재생 가능한 소재를 써야 한다. 화학업계는 경쟁적으로 재생 플라스틱 연구에 돌입하고 있다.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데, 플라스틱 수요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화학제품 수요는 2030년까지 약 30%, 2050년까지 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음식물쓰레기와 분노, 버스를 달리게 하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는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러브커널 지역이 있다. 1942년~1950년 후커 케미컬사는 이 지역을 화학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진흙으로 덮어 폐쇄했다. 20년 뒤 1970년, 이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은 유산, 기형아 출산, 알 수 없는 두통과 피부병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화학 폐기물을 매립했던 진흙 폐기층이 무너지면서 발암 물질 등이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시켰던 것이다. 1978년 미국 정부는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1억 달러 이상을 들여 복원사업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문제를 깨끗이 풀지 못하고 있다.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은 음식물쓰레기, 비닐 등의 생활 폐기물과 중금속 등의 산업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업과 관련된 오염물질 등이 있다. 이중 축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51%를 차지한다. 전 세계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13%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캐롤라이나주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분뇨 처리 계획 관리에 대한 6시간의 실습교육을 받게 한 뒤 시험을 치른다. 합격하면 5년간 유효한 면허증이 발급되며 매년 10달러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국가별 축산 배출물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축 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축 분뇨의 배출, 운반, 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뇨 관련 오염물질을 재처리하는 방법 중 흥미로운 분야가 있다. 바이오가스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쓰레기, 동물의 배설물 등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형성된 가스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기존 천연가스와 유사해 천연가스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스웨덴 스톡홀름시는 대중교통의 95%가 바이오연료차로 운행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1만 3천여 두의 젓소를 기르는 알 라와비 목장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통해 에너지를 이용하고 남은 부산물로 1일 10톤의 비료를 생산하여 목장 약취를 80% 정도 감축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똥의 재발견인 셈이다.

▶ 지구, 대체할 수 없는 삶의 터전

코로나19의 대유행은 폭증하는 인구와 환경오염을 견디지 못한 지구가 자가 치유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씁쓸한 이야기다. 인류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지구를 떠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갈 터전은 지구뿐이다. 기업은 그런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주체다. 22세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지구를 지켜야한다. 기업들의 부단한 혁신과 소비자들의 녹색소비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자세한 참고자료 리스트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웹진 내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23029011&wlog_tag3=daum

블랙록 CEO, 기후변화 대응 강조..."환경 위험 노출하는 투자 발빠겠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1590831>

글로벌 석유 기업 "재생 에너지에 미래 있다"...'한골탈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511283047993>

[팩트체크]모르고 먹는 미세플라스틱 얼마나 될까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7343>

'아이시스' 물병에 라벨이 사라졌다...'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전쟁하는 화학업계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408255996288>

페플라스틱 재활용 발 벗고 나선 화학업계..."순순환' 이끈다"/'플라스틱 순순환' 나선 효성·롯데·SK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800526>

[포스트 코로나 유망 비즈니스 22] 밀려드는 배송에 쌓이는 포장재들...'친환경 소재' 도입하는 유통기업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0051801277000431>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 90%까지 국산화

<https://news.v.daum.net/v/20071130175008732?f=o>

<김성용의 저울달기> 주변에서 사라지는 토양

<https://www.yna.co.kr/view/AKR20160909132700022?input=1179m>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육식을 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421340522952?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가축분뇨 규제 강화 조짐...축산업계 '비상'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22727/view>

약취나는 가축분뇨가 청정 에너지원으로 변한다!

<https://news.imaail.com/Society/2020051814412266375>

[기고]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도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0152059025

외부 온도 50°C인 아랍에미레이트에는 1만6천두의 젓소를 사육하는 목장이 있다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6393>

유리연구소-보고서 리뷰

기후리스크, 친환경 포도폴리오로 신규 시장 창출해야

기후변화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로 작용할까. 단기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겠지만 기후의 변동성, 변화 속도를 생각하면 기업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밸류체인(가치사슬) 상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 원자재 및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기업의 평판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규제도 위험 변수 중 하나다. 산업별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활동별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한 때다.

▶ 나날이 커지는 기후변화 리스크

기후에너지솔루션센터(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가 S&P 글로벌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겨우 28%만이 기후영향평가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보다 더 낮은 18%만이 기후영향평가 전문 툴이나 모델을 이용해 기후 리스크를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고, 소비자의 제품 선호도가 바뀌고,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기후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예측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후 리스크(Climate Risk)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밸류체인 리스크와 외부 이해관계자 리스크로 나뉠 수 있다.



▶ 밸류체인 리스크

먼저,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는 기후변화로 인프라 및 기타 자산에 입게 되는 피해를 말한다. 즉, 산불, 홍수, 허리케인 등 이상기후의 발생이 점차 빈번해지고 강도가 심해지면서 기업은 자사 공장이나 공급망 설비에 피해를 입게 된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따르면 홍수, 가뭄, 폭풍 등 기후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1970년대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물리적 리스크는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기업은 발생 가능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도입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 먼저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해야 한다. 기후변화 모델링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후 예측을 통해 지역별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리스크 발생 확률과 온도, 습도, 강우량 등 주요 지표에 대한 장기적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어느 사업 부문이 취약한지 확인하여 다양한 리스크 완화 프로세스와 기술 표준 등을 도입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설비를 다양한 지역에 분산시키거나 중복해 건설하고, 기후 리스크가 높은 공급업체나 지역을 피하는 등의 대응책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가격 리스크(Price Risk)는 원재료나 상품의 가격 변동성 증가를 의미한다. **가ם으로 물 가격이 높아지고, 기후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하이테크 및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TV,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¹⁾의 가격 상승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십여 년간 자원 가격은 상승했으며 변동성도 커졌다. 여기에 불안정한 기후까지 가세하면 기업의 생산, 에너지, 수송, 보험 관련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이케아(IKEA)는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전통적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 달성을 통해 미래 에너지 비용이 예측 가능해지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점차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 경제적 목적으로 '독립형 발전 형식의 오프 그리드²⁾(Off Grid)'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제품 리스크(Product Risk)는 제품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제품 리스크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산업에서 친환경 제품이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건설 및 인프라 부문에서는 전지자동차 충전소, 에너지 고효율 건설 기술 등 친환경 도시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리테일, 소비자 등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지속가능성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기업의 이익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일치하도록 기업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 외부 이해관계자 리스크

먼저, 평가 리스크(Ratings Risk)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공급망 혁신, 제품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자본비용 증가 가능성을 뜻한다. 평가 리스크는 산업 간, 그리고 산업별, 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탄소집약적 기업들도 이에 대한 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미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자사의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메이저 정유 기업들은 전략적 의사결정 시 내부적으로 탄소 거래 가격을 고려한다.

둘째, 규제 리스크(Regulation Risk)는 기후변화로 인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의미한다. **비용 상승을 초래하거나 특정 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 경쟁사에 유리한 보조금 지급, 자사에 지급되던 보조금의 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산업에서 정부는 시장경쟁의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가능성

1) 란타넘, 세륨 등의 원소를 일컫는 말로 희귀 광물의 한 종류. 채굴과 가공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선진국이 자국 생산을 꺼리는 이유.
2) 외부로부터 공공 수도나 전력 따위를 공급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생활 방식.

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7개 지역에서 탄소거래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력 발전원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도입했다. 한 가지 복잡한 문제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수시로 변경되며 대선 등의 선거 결과에 따라 추진 속도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장기적 투자 및 사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규제 리스크 관리를 도입해야 한다. 미래 규제에 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도입 가능한 여러 정책 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규제 및 정책 변화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기후변화에 대한 내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규제당국, 산업 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는 대중들이 기업 활동이나 위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평판이 나빠지면 소비자 불매 운동, 지역사회 반대시위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규제 환경과 투자자 관계도 악화되며 현재 및 미래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불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기후변화로 물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기후 관련 규제 사용이 불가능해진 '좌초자산(Stranded Asset)'에 대한 우려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기후변화 전략 도입을 위한 공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니레버(Unilever)는 1995년 이후 탄소이용률을 40% 개선했다. IBM도 공급업체에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미국 환경보호국으로부터 공급망 리더십을 인정받아 2013년 기후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했다. 포춘 500대 기업은 하나 같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사의 노력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순조로운 첫 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다.

▶ 기후리스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

기후변화는 이제 기업에 있어 마케팅이나 사회공헌이 아닌 근본적인 사업의 전략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는 기업의 가치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는 고스란히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기후리스크는 기업이 극복해야 할 새로운 사업적 과제다.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일 것이다.

*참고 자료 - 『리스크의 다른 말은 '새로운 가치 창출' 친환경 포트폴리오로 어려움에 맞서야』 DBR에서 발췌

SDGs로 알아보는 기업윤리

국내 기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사례(5)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코스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는 ▲기후변화(71%),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55%), ▲교육(50%),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42%), ▲건강과 복지(39.5%) 순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SDGs로 알아보는 기업윤리』에서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마지막 순서로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SDGs 목표 3. 건강과 복지 -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및 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플 것을 알면서도 아기에게 오염된 물을 먹이는 엄마, 불결한 환경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들, 기본적인 백신과 약물도 없어 사망하는 환자들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에 노출돼 고통 받고 있다. UN의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졌다.

[Goal 3: 건강과 복지]

세부목표	내용
SDGs 세부목표 3.1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SDGs 세부목표 3.2	전 세계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의 종식
SDGs 세부목표 3.3	AIDS, 결핵,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 등의 질환과 전염병 퇴치
SDGs 세부목표 3.4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1/3으로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SDGs 세부목표 3.5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SDGs 세부목표 3.6	2020년까지 전 세계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감소
SDGs 세부목표 3.7	가족 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산 보건을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
SDGs 세부목표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SDGs 세부목표 3.9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
SDGs 세부목표 3.a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 강화
SDGs 세부목표 3.b	모든 사람들이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접근 가능하게 지원
SDGs 세부목표 3.c	보건을 위한 자원, 인력 채용, 훈련을 대폭 확대

업을 위한 CSR 백서』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 기업 사례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UN의 목표에 동참하고 의료와 안전보건을 통해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 번째 목표인 '건강과 복지'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실천 사례들이다.

KT -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

KT는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Global Epidemic Prevention Project, GEPP)를 추진하고 있다. GEPP는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16년 개발된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이동전화 이용자의 해외 로밍 정보 및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후 우리 정부는 KT를 비롯한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확진자의 통신·금융 데이터를 토대로 GEPP 기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KT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정부와 세계 각국의 GEPP 활용 동참을 유도, 관련기술과 노하우를 무상 이전할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 - 20 by 20 Commitment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20년까지 여성 20만 명의 건강과 웰빙, 경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항암 치료로 인한 외모 변화로 우울해질 수 있는 여성 환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유방암 조기 발견의 가능성을 알리는 마라톤 대회 '핑크런', 유방암 자가 검진 프로그램 '핑크투어' 등이 그것이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모리파오(茉莉跑)'라는 이름으로 작년 중국 상하이에서도 개최되어 5,000여 명이 참석했다. 20 by 20 Commitment의 누적 수혜자 수는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441,458명으로 당초 20만 명 목표의 221%를 달성했다.

*참고 자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2019 KT 통합보고서 <https://www.etnews.com/20200218000159>

2019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금까지 『SDGs로 알아보는 기업윤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호부터는 『중소기

국내 동향

1. 식품업계, 친환경 정책 강화

이달부터 비닐·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가 시행되면서 국내 식음료 업계도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소비층이 친환경 소비 기조를 보이자,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CJ제일제당은 2016년 지속가능한 패키징 정책을 수립했다. 친환경 포장 설계, 재생 가능한 소재 사용, 친환경 원료 사용 등을 원칙으로 하는 친환경 패키징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978톤을 감축했으며 해외 바이오 생산기지 11개도 구축했다.

동아오츠카는 2013년 음료업계 최초로 패키지에 무색 투명 페트병, 비접착식 라벨, 분리 안내선을 도입했다. 주력 상품인 포카리스웨트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분리 안내선 '블루라벨'을 적용, 약 5억 5,000만 개의 페트병을 재활용했다.

빙그레는 동종업계 최초로 요플레 컵에 탄산칼슘을 혼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 바나나맛우유 용기를 만들 때도 재생 원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이제 친환경 정책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라며, 친환경을 넘어 친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 - 뉴시스, 2020.07.19

[친환경 경영]식음료업계, 친환경...재활용률 높이기 강화

https://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717_0001098653#_eniple

2. 가전업계, 최첨단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 강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대표 가전업체들은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 경제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알뜰가전'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이하가 소비권력을 잡기 시작했고, 이들은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환경에 대한 자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고효율 1등급 가전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 조선비즈, 2020.07.12

최첨단 기술 내세웠던 삼성·LG전자, 왜 전기료 절감에 목매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1/2020071101925.html

해외 동향

1. 재생 에너지,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전력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강화되면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어떤 에너지로 조달하는 지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글로벌 업체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BMW는 삼성 SDI 등 부품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폭스바겐 또한 LG화학에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200여개 글로벌 기업은 제품 생산이나 기업체 운영에 필요한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한다는 이른바 'RE100(Renewable Energy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참여 기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런 요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 - 조선비즈, 2020.07.07

BMW·애플, 부품사에 "100% 재생에너지만 써라"... 구글은 "원전도 무탄소 에너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2766.html

2. 골드만삭스, 친환경 미래 주식 추천

골드만삭스가 유럽연합의 최대 경기부양책으로 꼽히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관련 테마주 20종목을 추천했다. 이 정책에 총 7조유로(약 9581조 4600억 원)가 투입되고, 유럽 에너지 기업의 수익이 급증할 거란 전망이다.

그린딜은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으로 △청정에너지△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분야로 나뉜다. 특히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인 기후 중립국을 목표로 한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지난 11일 "전문가들이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NEP의 투자 추이를 재분석하기 위한 추정치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2025~2030년에 주당순이익이 2.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친환경 발전 관련주'는 2020~2030년 주당순이익 성장률이 약 9%를 보일 것이며, 자본지출이 빨라지면 최대 20%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 - 조선비즈, 2020.07.14

[글로벌마켓] 골드만삭스 추천 '유럽 친환경 미래주식' 살펴보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1754.html

행사 소식

윤경SM포럼 8월 정기모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의 유종일 원장을 초빙해 '그린뉴딜과 지속가능한 소비(가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

주최 윤경SM포럼

일시 8월 28일(금) 9:00 ~ 10:00

장소 서울 핀란드타워 디지털 강의실

문의 best@ips.or.kr

Delivering Net Zero Virtual Week

기업들의 탄소배출 제로(Net-Zero)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웹 세미나. 글로벌 CEO, CSO 및 투자자들과 내년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공유한다.

주최 Reuters Events

일시 8월 4일 ~ 8월 5일

등록 <https://eloqua.ethicalcorp.com/LP=28004>

문화 속 기업윤리

독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 『다크워터스』



『다크워터스』는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과 맞서 싸우는 변호사 롭 빌렛의 이야기다. 롭은 할머니의 소개로 웨스트 버지니아의 농장주인 테넨트를 만난다. 테넨트는 듀폰의 공장이 농장 근처에 들어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의뢰한다. 검게 변색된 소녀의 치아, 소 190마리의 갑작스러운 폐죽음, 그리고 기형아 출산. 롭은 사건을 수임한다.

롭은 듀폰이 제출한 서류에서 PFOA³⁾라는 단어를 발견한다. 듀폰이 만들어낸 이 화학물질은 코팅 프라이팬, 유아 매트, 종이컵, 콘택트렌즈 같은 일상용품에 활용되고 있었다. 듀폰은 PFOA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은 물론, 지역 하천에 무단 방류까지 하고 있었다.

롭은 지역 주민들의 혈액을 채취해 PFOA가 6가지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신장암, 고환암, 갑상선 질환, 자간전증, 고 콜레스테롤, 궤양성 대장염이다. 결국 법원은 듀폰에 8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다. 무려 20여 년에 걸친 소송이었다.

『다크워터스』는 허구의 히어로물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실화다. 그리고 실존 인물인 롭 빌렛은 이미 인류의 99%가 PFOA에 중독되었다고 말한다. 영화에는 MBC의 뉴스데스크가 PFOA의 위험성을 보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지출처: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35371>

3) 과불화옥탄산, 잔류성 유기화합물에 속하는 환경호르몬.

지식1g

빈용기 보증금 제도

- ▶음료를 마시고 빈병을 반환하면 판매가격에 포함된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 ▶제품 라벨에 재사용 표시가 되어 있는 병이 대상.
 - ▶모든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용기 반환 가능.
-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빈 병 반환 거부 신고하기 <https://www.reusebottle.kr/main>

대상제품	규격	빈용기 보증금액	
		2016. 12. 31까지	2017. 01. 0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자원재활용 법 시행령령 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 / 개	70원 / 개
	190ml 이상 ~ 400ml 미만(소주병)	40원 / 개	100원 / 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맥주병)	50원 / 개	130원 / 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 / 개	350원 / 개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당신의 '맑은 일상'을 보여주세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20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당신의 맑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주제	청렴·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 일상에서 겪은 정의로운 행동 또는 양심 관련 사연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integritycontents.kr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심사방법	예심 및 본심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수상작 선정
응모분야	수기, 시, 영상, 웹툰·카드뉴스, 노래 총5개 분야	시상내역	총 50편, 총 상금 5,160만원

구분	일정	내용	시상내역
수기	6월~9월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일상과 응모주제 관련 수기 (A4, 4페이지 이내)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480만원
시	6월~9월	응모주제 관련 창작시(A4, 1페이지 이내)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480만원
웹툰·카드뉴스	6월~9월	응모주제 관련 창작 웹툰(25컷 이내) 카드뉴스/(10컷 이내)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900만원
영상	7월~10월	응모주제 관련 창작 영상물(10분 내외)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1,950만원
노래	7월~10월	응모주제 관련 노래(2분 내외)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10편, 1,350만원

독자퀴즈

Q. 다음 중 이번 호에서 소개한 환경재해 사례가 아닌 것은?

- ① 일본 동일본 대지진
- ②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의 러브커넬 사건
- ③ 한국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
- ④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 지난 호 정답 : ④번

● 정답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acrcbusinessethics@gmail.com)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자는 엄지현 님, 김지선 님, 강재언 님, 박순철 님, 우화경 님 입니다. 축하드립니다!